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실태와 발전방향

황 석 규¹⁾

Real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Multicultural Parents Education i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Hwang Suk-Kyu¹⁾

요약 : 정부의 다문화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통해 미래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육성되고 부모국가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역량 강화의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입장에서 오늘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껏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성적부진, 왕따 등)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못한 상태이다. 여기서는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사업의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 상급기관인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기업재단들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 장기적이고 체계화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담당기관의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담당기관들(본고에서는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은 상급기관과 참여자들의 중간매개체로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학부모교육의 성과를 얻고자 노력해야 한다. 셋째, 교육 참여 학부모들은 스스로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나가며 학교생활의 다양한 정보 습득을 통해 자녀 교육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

주요어 :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다문화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Abstract : The government's support for multicultural education aims to build future social safety network at preventive level through school life adaptation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however, includes the meaning of educational competency consolidation to foster multicultural students as global citizens who can play a role in bridging their parents' countries, as well as improvement of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this context, multicultural education needs to be executed both at home and at school and the need for education for multicultural parents is emphasized from such a standpoint nowadays. Although many studies on multicultural students' school life adaptation (poor academic results, being treated as an outcast, etc.) have been conducted so far, the study on the multicultural parents has yet to be conducted. This study identifies the reality of education for multicultural parents undertaken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12, points out problems and presents opinions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education. First, The National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an upper level institution to support education for multicultural parents, and corporate foundations should actively support such an education to make it a long-term and systematized one. They also need to manage and oversee the institutions in charge of the education. Second, the institutions in charge of the education (Jeju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and Jej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1) 제주고고학연구소 연구위원(Researcher, Jeju Archaeological Institute), sukkyuhwang@hanmail.net

this study) should endeavor to fulfill efficient education for multicultural parents to bolster the school life adaptation and educational competency of multicultural children by operating education for those parents, as an intermediary mediator between the upper institutions and the participants in the education. Third, the education-participating parents need to expand and show a keen interes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and focus on the educational competency fortification of their children through a variety of information acquisition on their children's school life.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parent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eju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 Jeju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1. 서론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취학 및 학부모의 국가별 현상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현상과 일반적으로 유사하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학교에 새로운 현상들을 야기한다. 정부의 다문화교육 지원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통해 미래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 육성되고 부모국가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 역량 강화의 의미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학교와 가정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런 입장에서 오늘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껏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성적 부진, 왕따, 따돌림 등)에 관한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

고 있지만(교육과학기술부, 2008; 양계민 · 정진경, 2008; 오성배, 2006; 이재분 · 강순원 · 김혜원, 2008)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못한 상태이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사업이 시작되었다. 여기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구성구조주의적(constructive structuralism) 관점에서 한국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제주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 국가별 현황

교육부가 매해 4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 통계에 의하면 한국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6년에 9,389명, 2012년에 46,954명으

<표 1> 제주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 추이(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A	B	합계	A	B	합계	A	B	합계	A	B	합계
2007	108	0	112	14	0	16	3	0	3	138	1	145
2008	152	2	158	20	0	23	7	0	7	190	6	207
2009	186	7	197	29	0	33	12	0	14	252	10	272
2010	227	10	237	34	0	34	15	1	16	276	11	287
2011	280	13	293	54	2	56	20	0	20	354	15	369
2012	334	15	349	69	4	73	24	0	24	427	19	446
2013	390	21	411	93	6	99	30	0	30	513	27	540
증감	+56	+6	+62	+24	+2	+26	+6	0	+6	+86	+8	+94

주) A: 국제결혼 자녀, B: 외국인 근로자 자녀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3. 4. 1. 기준.

<표 2> 다문화가정 학부모 국가별 현황 (2013. 4.1. 단위: 명)

출신국 학교급	중국(한국계)	일 본	필리핀	베트남	미 국	대 만	러시아	기 타	합 계
초	146	73	76	50	18	11	8	29	411
중	24	41	13	7	2	2	1	9	99
고	8	17	2	0	0	1	0	2	30
계	178	131	91	57	20	14	9	40	540
비율(%)	33.0	24.3	16.8	10.5	3.7	2.6	1.7	7.4	100.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13.

로 집계되었고, 2013년에는 55,767명으로 급속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수치에 근거하면 전체 한국 초·중등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초·중등학생의 비율은 0.86%에 이르고 있고, 내년에는 1%의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학교급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생이 39,423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71.1%에 해당하며, 중학생은 11,235명으로 20.2%를 차지하고, 고등학생은 4,827명으로 8.7%에 달하고 있다. 부모의 출신국가별로 구분하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이 34.4%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3.4%로 그 뒤를 따르며, 필리핀이 15.4%, 그리고 베트남이 1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다문화가정 초·중등학생의 증가세와 비교해서 제주의 다문화가정 초·중등학생의 증가 현상은 <표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주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07년에 145명, 2012년 446명 그리고 2013년 54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 전체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85,835명이며, 이 중 제주 다문화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0.63%에 해당하고 있어 한국의 0.86%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생이 411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의 76.1%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생은 99명으로 18.3%를 그리고 고등학생은 30명으로 5.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전체와 비교해서 초등학생의 수는 동일하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 중등학생은 전국과 비교해서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지만 차이는 근소하여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제주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출신국가별 구분을 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이 33%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24.3%이며, 필리핀이 16.8% 그리고 베트남이 10.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의 현상과 유사하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생의 취학과 학부모의 국가별 현상은 한국의 현상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외국과 한국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실태

1) 외국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실태

여기서는 다문화주의를 제일 먼저 표방한 미주 내 캐나다에서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과 상호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 내 독일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캐나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정규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게 하는 다문화교육과 반차별,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있어 다문화주의 교육에서 반인종차별 교육을 거쳐 현재는 포용적 교육과정의 접근을 취하고 있다. 포용적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을 포용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경미, 2010, 182). 캐나다 정부와 교육청은 문화적 모자이크 국가정책에 입각하여 정

규수업에 다문화의 포용적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성 및 반차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실시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사업은 이주민 스스로 결성한 시민단체(NGO)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 이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벤쿠버의 SUCCESS 시민단체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이다. 벤쿠버 지역의 이주민 구성은 중국이주민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수를 점유하며, 그 뒤를 이란인, 한국인 순서로 분포되어 있다. 1973년 중국이주민들에 의해서 SUCCESS 단체가 처음 출발하였고, 이후에는 중국이주민만이 아닌 타국가 출신이주민들로 확대되어 현재 벤쿠버 여러 지역에 SUCCESS 단체의 지부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SUCCESS 단체들은 우선적으로 이주민을 위한 캐나다 정착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자녀를 위한 모국어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4개의 이주민 본국어로 소개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리플렛이 있다. 광둥어, 북경어, 이란어 그리고 한국어로 제작되어 있고, 내용은 아동지도 요령, 독서지도 요령, 아동발달 정보를 수록한 달력, 학생제 시용교육 등을 수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캐나다 SUCCESS 시민단체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Parents Ambassador”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양성시켜 사회공동체에 참여시킴으로써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이런 사회관계망에서 자녀의 교육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익히도록 유도하고 있다(정광중 외 2012, 291-293).

결국 캐나다 정부와 교육청은 학교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이주민 스스로 결성한 민간단체에 의한 능동적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2000년 OECD

국가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PISA(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평가결과에서 고조되었다. 평가결과는 독일 정부가 기대하던 성적에 비해 독일 초등학생 성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에 독일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분석을 이행하였고, 분석에 따르면 독일 초등학생들 중 양쪽 부모 모두가 독일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나 이주한 가정 출신의 초등학생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독일 전체 평균성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부모 중 한 분이 독일에서 출생한 경우의 이주배경 자녀는 부모 모두 독일인인 경우의 자녀와 비교해 학업 수행 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¹⁾ 특히 학업 수행 능력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은 언어 활용 능력이었으며, 이는 부모 중 한 분이 독일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가정의 자녀와 비교해 부모 모두 독일에 출생하지 않은 이주배경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일출생 배경이 없는 이주가정 자녀들의 독일어 읽기 과목에서의 극심한 성적 부진이 수학 및 다른 과목 성적 저하로 진행되었다고 분석되었다(Deutsches PISA-Konsortium, 2001, 372-379). 따라서 독일정부는 독일출생 배경이 없는 이주가정 초등학생들의 독일어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주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몇 연방주들은 이들 이주가정 학생들을 위한 준비반 혹은 특별반을 운영하면서 독일어 습득을 돕고 또한 특별하게 동일한 국적을 지닌 학생들을 묶어서 그들의 모국어를 통한 독일어 습득을 돕게 했다. 그러나 2003년 재차 실시된 PISA 평가 결과는 이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정부는 독일출생 배경이 없는 이주가정 학생에게만 성적 부진의 이유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고, 독일출생 배경이 없는 이주가정 전체 구성원의 독일어 습득 필요성을 지적하게 된다. 이는 독일정부가 2001년과 2003년에 실시된 PISA 조사결과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김민호 외, 2011, 176).

결국 독일 정부는 PISA 평가 결과를 초기에 분석할

당시 초등학생의 성적 부진 요인은 독일출생 배경이 없는 이주가정 학생들의 독일어 활용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보였다. 하지만 독일정부는 점차 이들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출생 배경이 없는 이주가정의 문제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정부의 이러한 분석 결과와는 다르게 실천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교육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 대부분 학교들은 독일출생 배경이 없는 이주가정 학생을 위한 특별반 혹은 준비반을 운영하지 않고 독일학생과 평등한 수업을 받는 통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교육청은 독일출생 배경이 없는 이주가정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 학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학부모교육은 실시·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거주 지역 내 민족 간 구별되는 이주민 자조모임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자조모임에서 내부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독일은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는 대부분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주가정 학부모교육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한국의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실태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시작은 2009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한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프로그램부터이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로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이전한 2012년부터이다.

2012년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실시의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부모교육 사업목적은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국가평생교육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3, 20)를 위한 지원에 두고 있으며, 이는 세부적으로 “첫째,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한국사회에 대한 안정적 적응 지원, 둘째, 한국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그리고 셋째, 자녀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국가평생교육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3, 20).

<표 3>에서 보듯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2009년부터 진행한 다문화가정 교육 사업은 매해 그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에 실시한 교육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라기 보다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9년에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2010년에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사업명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이다. 2011년 역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의 시작으로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시작은 2011년으로 보아야 하며 본격적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은 중앙

<표 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사업 변동 추이

년 도	2009	2010	2011	2012
지원사업명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다문화가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다문화가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주요대상	다문화가정 구성원 (결혼이주여성)	5년 이상 거주 다문화가정 구성원	예비학부모(아버지 포함)	만 3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모
지원대상수	2	10	11	16

출처: 국가평생교육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3, 136~137.

<표 4> 기관유형별 지원 현황

기관유형 년도	2009	2010	2011	2012
시군구 평생학습관(도서관)		4	2	2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1	6	10
시민사회단체	1		2	3
복지시설	1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	1	
교육청				1
합계	2	10	11	16

출처: 국가평생교육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3, 139-142.

다문화교육센터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부터이다. 2012년 지원사업명 자체도 평생교육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 대상자도 보다 구체적으로 만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기관의 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09년 2개 기관에 지원하던 것이 2012년에는 16개 기관으로 8배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시·도 균형적으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기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4>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09년부터 평생학습관, 민간단체 그리고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에 까지 지원

을 확대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편입되면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질과 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양적으로는 지원 기관의 수를 시·도 균형을 맞추면서 확대하였던 점이며 질적으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5>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기관들의 사업명만을 확인하더라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틀이 체계적으로 갖춰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에서 진행되고 있고, 자조모임에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진행되는 민간단체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중앙정부와 기업 등을 통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위탁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1>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출처: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사진2>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결과보고회

<표 5> 2012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원 기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사업명

지원기관 연번	프로그램명
1	1. 엄마랑 아이랑 책읽기 놀이 2. 행복한 우리가족 아빠와 함께 3. 행복더하기 다문화가족 어울림 축제
2	다문화 아동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3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4	책으로 소통하는 다문화세상
5	레인보우 점프 업 II
6	HAPPY 플러스 2012 Parents-Children-Family
7	다문화가정 학부모 아카데미
8	아름다운 오색(五色)동행
9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답쟁이 교실”
10	학부모 햇살학교
11	2012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
12	행복한가정만들기
13	“원더담! Happy Family Project!”
14	이해하고 공감하며 사랑하자 2
15	1. 최고·최강 부모되기 / 어머니 교육 2. 위풍당당 아버지되기 / 아버지 교육 3. 함께하면 빛이 나는 우리 가족 / 가족캠프
16	건강 다문화 가정 학부모 되기

출처: 국가평생교육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3, 155-227.

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실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공공과 민간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정착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다(정광중 외, 2011. 181-186). 2012년을 기점으로 제주지역에서도 한국의 상황에 걸맞게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 극복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 운영되게 되었다. 민간단체로는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 제주다문화교육센터에서 운영

하고 있다. 두 센터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웅진재단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 지원 사업에 따라 위탁 운영되고 있다.

1)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실태

현재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된 단체는 제주지역에서 가장 오래도록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이 민간단체의 기원은 2002년 제주의국인근로자센터이며, 2003년에 단체는 (사)외국인평화공동체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외국인평화공동체는 내부 부설기관으로 제주이주민센터, 서귀포이주민센터 그리고 몽골평화공동체를 포함하고 있었다. 부설기관인 제주이주민센터가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었고, 2010년부터는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사)외국인평화공동체 내부조직 개편에 의해 제주이주민센터와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리되었고, 현재의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외국인평화공동체 내 새로운 분리 부설기관으로서 공모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지정 사업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2012년 처음으로 시행한 단체이다. 센터는 웅진재단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센터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사업취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수의 엄마, 아빠들은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우리 센터는 다문화가족의 부모역할교육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홈페이지 참고).”

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은 초등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부모이며, 두 개 반 특



<사진 3>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출처: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히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중급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 참여 대상인원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인 경우 10~15명 그리고 배우자인 경우는 10명으로 정하고 있다. 기간은 2012년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고, 교육시간은 국제결혼이주여성반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매주 2시간 교육이며 14회에 걸쳐 운영하고, 한국인 배우자반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매주 2시간 교육으로 12회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또한 8월 31일 ~ 9월 1일에는 1박 2일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통합교육 캠프가 실시되고 있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생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모국에서 자란 경험과 한국 교육 현실의 차이를 비교하며 보다 적절한 자녀교육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학부모 교육을 위한 사전과 사후조



<사진 4>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사를 실시하여 장기적 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점과 또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교육의 목표에 보다 잘 부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지금까지 민간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은 부부관계로서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는 교육이었다면, 이번 학부모교육은 자녀를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종결 후 김정우 센터장과의 인터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부부교육프로그램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교육프로그램에는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과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부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껏 화목한 가정을 위한 부부교육을 진행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부부교육을 진행했는데 제주지역에 아주 필요한 교육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부부애가 좋은 부부만 교육에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부부애가 좋고 자녀와 대화가 잘 이뤄지는 가정에서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잘 생활합니다. 오히려 갈등이 심한 부부 그리고 맞벌이로 시간이 부족한 부부들이 교육프로그램에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들 참여가 어려운 부부들을 위한 특별 교육

<표 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역량강화 부모교육 지원 프로그램 내용

교육 횟수	국제결혼이주여성반 강의 내용	한국인 배우자 강의 내용
1	• 개강식(오리엔테이션) • 사전 설문조사 • 배우고 싶은 내용 이야기 나누기	• 개강식(오리엔테이션) • 사전 설문조사 • 배우고 싶은 내용 이야기 나누기
2	• 어휘력으로 승부 거는 자녀학습과 독서	• 어휘력으로 승부 거는 자녀학습과 독서
3	• 좋은 부모가 되려면	• 건강한 자녀교육 • 학교생활 안내
4	• 부모의 역할과 자녀 학습 길잡이	• 부모의 역할과 자녀 학습 길잡이
5	•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부모 역할	•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부모 역할
6	• 자녀의 감성을 키우는 동화 읽어주는 부모님	• 좋은 부모가 되려면
7	• 내 아이 쑥 빠져들게 하는 동화구연 방법	• 자녀의 감성을 키우는 동화 읽어주는 부모님
8	• 올바른 자녀교육 방법 • 학교생활 안내	• 나는 가정의 건강지킴이(좋은 아버지)
9	• 가족폭력과 성교육	• 가족통합캠프(부부, 자녀)
10	• 가족통합캠프(부부, 자녀)	• 삶, 내 인생의 꿈과 비전나누기 • 내 자녀의 1%의 가능성을 믿기
11	• 나는 가정의 건강지킴이(좋은 어머니)	• 가족폭력과 성교육
12	• 학교 방문	• 사후 설문조사 • 만족도 조사 • 수료식
13	• 삶, 내 인생의 꿈과 비전나누기 • 내 자녀의 1%의 가능성을 믿기	
14	• 사후 설문조사 • 만족도 조사 • 수료식	

출처: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지속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공모 위탁사업은 일회성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보다 지속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재단 및 기관에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반학교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 실시되었으니 2013년부터는 일반인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학생 학부모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대화 및 활동이 많아지고 이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2012. 10. 11. 김정우 센터장과의 인터뷰 중에서).

2)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실태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2010년

(구)조천초등학교 신흥분교장이 폐교한 자리에 2012년 4월 6일에 개원되었다.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1)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 다문화가정 학부모 역량 강화, (3) 일반가정 학생 및 학부모 다문화이해교육, (4) 교원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신장 그리고 (5)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선정하여 다양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게 되었다. 센터는 첫째,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과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역량 강화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 수업의 정상화 및 인재육성을 추구하며, 둘째, 일반교사, 일반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와 인식을 확대하여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도우며, 셋째, 미래 다문화사회 형성에 기초하는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넷째, 효율적 다문화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다문화 관련 기관들과의 유기적 협력관

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정광중 외, 2012, 179-180).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에 속하고 있다. 개원 원년부터 센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면서 “건강 다문화가정 학부모 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센터의 건강 다문화가정 학부모 되기 프로그램은 2012년 10월 6일부터 2013년 3월 9일까지 13차시 수업을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만 3세 이상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부부동반)를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였고, 건강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건강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기를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 주요하게 고려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지역의 다문화가정 학부모보다 농촌지역의 학부모가 교육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³⁾. 특히 제주시 중심권에서 벗어난 조천읍과 애월읍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장소도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 접근성을 고려하여 제주다문화교육센터(조천읍 소재)와 국제가정문화원(애월읍 소재)으로 잡고, 교육을 2개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하거나 한 장소에서 통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둘째, 공공기관인 센터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보

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점이다³⁾. 제주지역에서 다문화관련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공동 운영한 첫 시험적 교육프로그램이었다. 셋째,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 대부분 제주다문화교사협의회 소속의 일반 교사들로 구성되어 교육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센터가 제주시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인 관계로 다문화가정 학부모 모집과 일반교사 활용에 수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째, 프로그램 운영 중 3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청강을 요구하여 이들을 수업에 참여하도록 허용하였다는 점이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취학 전 자녀의 학교생활을 습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교육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강이기 때문에 교육 참여에 적극적인 학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료증을 배부되지는 못했다. 여섯째, 전차시 부모교육시간에 유·아동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토요일에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어서 학부모 교육 시 자녀의 돌봄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들을 위한 특별 자녀 교실을 마련하였다. 자녀교육은 유아반과 아동반으로 구분하여 유아반은 자원봉사자들이 돌보도록 하였고, 아동반은 독서, 놀이 등을 전문 강사로 하여금 지도하도록 하였다.



<사진 5>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출처: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사진 6> 제주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출처: 제주다문화교육센터

<표 7> 제주다문화교육센터 건강 다문화가정 학부모 되기 프로그램 세부 내용

차 시	날 짜	내 용	장 소
1	10.6.(토)	개강식, 자녀 가정생활 알기	센터
2	10.20.(토)	자녀 가정교육 사이버 학습 정보 찾아가기 즐거운 다문화 가족 한마당 축제 참석	센터
3	10.27.(토)	교육제도(교육과정) 이해하기 자녀 학교생활 이해하기	문화원
4	11.10.(토)	자녀와 함께하는 다문화 요리 체험	센터
5	11.24.(토)	학교 공지사항 및 생활기록부 알아보기 선생님과 이야기하기	문화원
6	12.8.(토)	자녀들의 외침, 건강 다문화가정 사례 듣기	문화원
7	12.22.(토)	제주문화의 향기(박물관 탐방) 자녀의 감성능력 키우기(다양한 체험 제공기관 활용 안내)	센터
8	1.11.~12.(금~토)	제주 자연 생태와 함께하는 행복 가족 캠프	외부
9	1.26.(토)	학교에서의 학부모 참여 활동 이해 상급학교 진학지도(미래 직업 탐색)	센터, 문화원
10	2.2.(토)	제주사회의 자녀 교육열과 사교육 바로 알기	센터, 문화원
11	2.16.(토)	자녀와의 관계와 소통(대화기법)	센터, 문화원
12	3.2.(토)	학교숙제지원,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습관 기르기	센터, 문화원
13	3.9.(토)	건강한 부모 되기 다짐문 작성 다문화전담 코디네이터와의 대화, 폐강식	센터

출처: 제주다문화교육센터

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문제 및 발전방향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야기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성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문제점

첫째,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대상자 확보 문제이다. 대부분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고된 직종 혹은 농사일로 맞벌이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시간을 할애하는데 주저한다. 특히 농번기는 날씨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직종으로 토요일이지만 정해진 교육시간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도시와 농촌 간에는 교육 참여 시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고, 농촌인 경우 농사일이 집중되는 시기를 피하거나 교육시작시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남편이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일반가정에서도 자녀교육에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에서는 일반가정보다 자녀교육에 배우자의 참여는 더욱 중요하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주년수가 적거나, 한국어 활용이 미숙한 경우는 가정에서 학교생활에 관한 교육지도를 남편이 담당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의 이야기처럼 부부가 함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에 참여한 가정의 경우는 자녀교육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부부가 함께 다문화교육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주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자를 설정하였고,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제주시 농촌지역(조천과 애월읍)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자를 설정하였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학

부모교육 원년은 제주시권을 중심으로 교육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서귀포시의 중심도시권이나 농촌지역을 포함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확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특별반 운영에 대한 고민이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참여 대상은 자녀 연령에만 주목하였지만 이주배경에도 주목해야 한다. 대부분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한국국적을 지닌 자녀의 학부모⁴⁾이기 때문에 적은 수인 중도입국자녀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⁵⁾. 제주지역인 경우 중도입국자녀의 학부모 대부분은 관공서와 대학에 근무하는 전문직 외국인근로자로서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한국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식에 어두운 편이며, 한국어보다는 영어로 교육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주의 경우 많은 수는 아니지만 중도입국자녀들 즉, 국제결혼 이후 모친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온 외국 출생 자녀들의 학부모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⁶⁾. 이들 부모들은 초등학교생활보다는 중등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에 맞는 고급 전문 인력의 외국인근로자 학부모와 중도입국 국제결혼이주가정 학부모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일반가정 학부모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일반가정 학부모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은 여러 문화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일반가정 학부모들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해하고 만남과 대화를 보다 자연스런 상태로 형성하는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학교 학부모회 및 학교 행사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일반가정 학부모와의 만남과 대화로서 확대될 수 있다.

여섯째, 교육을 담당하는 센터는 상급관련기관과의 밀접한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 진행 상 어려운 점은 모두 위탁사업으로 진행되어 재정 지원이 멈추게 되면 교육 자체도 실행되지 못할 상황이며 단기적 혹

은 일회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센터는 재정적, 장기적 교육 진행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 기업 재단 그리고 지방정부 및 교육기관 등의 관련 상급기관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며, 이런 기관들에게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 시행 센터들은 상급관련기관에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 학교의 다문화교육과 더불어 주요한 다문화교육임을 이해시켜 나가야 한다.

일곱째, 센터의 매개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센터는 주어진 위탁사업만을 수행하여 마무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교육 역량 강화의 목적을 수행하는 주요한 기관이란 자긍심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센터 내 구성원들에 대한 자체 교육과 지역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하여야 하며, 참여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2) 발전방향

구성구조주의(constructive structuralism)의 입장은 구조주의에서 출발한다. 구조주의는 구조가 능동적이며, 행위자는 수동적임을 강조한다. 즉, 구조의 변화는 구조에 의해서 변화되지 행위자에 의해서 변화됨을 함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구성구조주의는 구조와 행위자가 능동적임과 동시에 수동적인 측면을 함께 포함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는 구조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서도 변화한다. 구조는 다양한 분화를 보여주며, 행위자들도 다양한 의식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다양하게 분화된 상태에서 구조와 행위자들은 주어진 생활조건에 적합한 관계 하에서 서로를 응집하는 매개체를 구성하게 된다(Bourdieu 1982, Hradil, 1999, Vester 1988). 따라서 구조는 행위자에 의해 단순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를 통해 구조와 행위자가 상호관계작용을 하면서 변화하

게 된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지역 특성에 맞게 새롭게 변화하며 체계화되고 장기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발전방향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의 교육관련 공공부문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학교중심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도 주요하지만 학교 입학 전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독일의 PISA 평가 결과 분석에서 학교생활 적응력 특히 언어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취학 전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특히 교육청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 인력 자원과 강사풀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적인 교육예산 편성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강제성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학교를 통해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학부모 특히 남편과 함께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에서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교육은 공공부문에서 진행할 수 없는 영역에 맞춰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2012년 제주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인 경우 제주 시권만을 대상으로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개되었는데 앞으로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서귀포시권에서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중등학생 학부모를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에의 참여가 중요하다. 일반가정 학부모보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열성이 부

족한 상황이다. 이를 다문화가정 학부모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자각하여 스스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자신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즉, 참여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변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캐나다처럼 자녀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자신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넘어서 교육 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갈 방안들을 스스로 찾아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⁷⁾.

넷째, 일반가정 학부모에 대한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이다. 제주지역에서 일반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는 글로벌선도학교⁸⁾로 선정된 학교에 지나지 않는다.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이 일반가정 학부모와 원활한 만남과 대화 그리고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일반가정 학부모들의 의식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일반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이 많은 학교로 확대되어 시행되어야 하며,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에 일반가정 학부모들도 참여하여 서로를 이해하며 자녀교육을 위해 상생하는 의식이 자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위해 도청, 교육청,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적 자원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전달시스템 하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담당하는 중간 매개체 기관들은 프로그램의 중복성을 피하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즉, 도시형, 농어촌형, 도서형 등 서로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보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제주지역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센터와 복지회관의 협조를 얻어 마을 순회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6. 결 론

점차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사회안전망)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에서 교육 역량 강화 더 나아가서 인재육성 교육으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도 주요하지만 가정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교육에 대한 전반적 흐름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현실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학교교육 적응력 향상 및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배우자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크기, 도시와 농촌 간 등 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상급기관, 교육담당기관 그리고 참여자의 적극적인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와 기업재단들은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이 장기적이고 체계화될 수 있는 적극적 지원과 교육담당기관의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담당기관인 센터들은 상급기관과 참여자들의 중간매개체로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의 지속 사업 운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력과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학부모교육의 성과를 얻고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센터들은 도시 및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 학교생활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 스스로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나가며 교육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자각시켜 나가야 한다. 행위자인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차이도 달라 나타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은 학부모 자신도 주요하

지만 이는 국가적 혹은 지자체적 그리고 교육기관의 노력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 주

- 1) PISA 평가 결과 분석에서 독일의 이주배경 자녀에 관한 구분은 3가지의 경우에 따라 진행되었다. 양쪽 부모가 독일인인 독일가정인 경우, 부모 중 한쪽이라도 독일인인 이주가정인 경우 그리고 양쪽 부모가 독일인이 아닌 이주가정인 경우가 그것이다(Deutsches PISA-Konsortium, 2001, 373).
- 2) 물론 도시지역(제주시)은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제주다문화교육센터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 3)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개원 원년이어서 교육 참가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고, 기존의 민간 전문 단체에서의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진행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었다는 점이 주요했다.
- 4) 다문화라는 표현 자체가 학교생활에서 부정적 의미로 부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이주배경을 지닌 한국인 자녀 학부모'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할 때 다문화 혹은 이주여성의 표현이 적절할 수도 있지만 국제결혼가정 자녀인 경우는 대부분 한국 국적을 지닌 자녀이기 때문에 '이주배경을 지닌 한국인 자녀'라는 표현도 옳다. 이번 제주다문화교육센터 교육 도중에 다문화라는 표현보다는 '이주배경을 지닌 한국인 자녀 학부모'로 표현되었고,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보다 높은 자긍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5) 한국 출생이 아닌 자녀를 둔 학부모는 이주배경 여부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부모 혹은 이주배경을 지닌 한국인 자녀 학부모로 나눌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로서 중도에 입국한 자녀들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로서 한국 생활 후에 자신들의 본국으로 돌아간다. 또한 중도입국 자녀의 다른 모형은 입양되는 외국 출생 자녀들로서 이들은 이주배경을 지닌 한국인 자녀 학부모이다.
- 6) 이 경우는 국제결혼 이후 모친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와 입양시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7) 이런 노력의 방안으로 자조모임을 통한 본국의 언어를 조기에 가르치는 이중언어교육은 중요하다.
- 8) 2012년부터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에 입각하여 16개 시도에 집중지원형과 거점형 글로벌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중장기 계획.

- 국가평생교육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13, 2012년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 김민호 외, 2011, 지역사회와 다문화교육, 학지사.
- 양계민 ·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
화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 연
구원.
- 오 성 배, 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 (ethnic
minority). '코스안'(kosian) 아동의 사례를 통
한 다문화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이재분 · 강순원 · 김혜원,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
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한
국교육개발원.
- 정광중 외, 2012, 제주국제자유도시 다문화교육 탐구,
제주대학교출판부.
- Bourdieu, P., 1982, Die feinen Unterschied.
Kritik der gesellschaftlichen Urteilstkr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Deutsches PISA-Konsortium(Hrsg.), 2001, PISA
2000: Basiskompetenzen von Schulerinnen
und Schülern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Opladen: Leske + Budrich.
- Hradil, S., 1999, Soziale Ungleichheit in
Deutschland. Opladen: Leske + Budrich.
- Vester, M., 1998, Klassengesellschaft ohne Klassen.
In: Berger, P. A. und Vester, M.(Hrsg.), Alte
Ungleichheiten Neue Spaltungen, Opladen:
Leske + Budrich, 109-147.
-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정 현황 통계 2013. 4.
제주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jmec.go.kr>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liveinkorea.kr/center/default.asp?pz=](http://www.liveinkorea.kr/center/default.asp?pz=mb&cc=jejusi)
[mb&cc=jejusi](http://www.liveinkorea.kr/center/default.asp?pz=mb&cc=jejusi)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nime.](http://www.nime.or.kr)
[or.kr](http://www.nime.or.kr)
- 투고일 2013. 11. 27
수정일 2013. 12. 29
확정일 2013. 12. 30